

IBKS CARBON FINANCE DIVISION

Invitation to Better Karbon Story

WEEKLY REPORT
VOL.16
2025.09.29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TOP HEADLINES

- EU “CBAM 지연 없다” 2026년 1월 최종 시행 확정
- “CO₂는 폐기물이 아닌 서비스형 상품” ZEP의 새로운 제안
- EU, 항공사 SAF 지원 위해 1억 유로 배출권 무상 할당
- 항공업계, CORSIA 배출권 공급 위해 승인서 조기 발급 촉구
- 페루-싱가포르, 파리협정 6.2조 기반 탄소시장 협정 실행 돌입
- 바클레이즈, 탄소 제거 Offtake 최대 규모 계약
- BCG “5개 중 4개 기업, 기후 대응으로 돈 벌었다”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EU “CBAM 지연 없다” 2026년 1월 최종 시행 확정

EU 집행위가 CBAM의 시행 지연 가능성을 부인하고 남은 규칙을 수 주 내 공개하겠다고 밝힘.

CBAM은 철강·시멘트·전기·수소·알루미늄·비료 6개 부문 수입품에 탄소국경부담금을 부과해 EU ETS 비용을 부담하는 역내 기업과의 형평을 맞추려는 제도

전환 단계는 2023년부터 진행 중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최종 단계가 본격 시행될 예정

다만 최종 단계에서 필요한 핵심 규칙 및 비EU 수출업자의 배출보고 방법론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 수입업자 불확실성이 존재

집행위는 ETS가 있는 국가의 시설만 실제배출 보고를 허용하는 방안과 함께 효율적인 우회방지 조치를 준비 중이라 밝힘.

산업계는 ‘Business for CBAM’ 연합을 출범해 CBAM의 지체 없는 시행과 ETS와의 정합성을 요구



“CO₂는 폐기물이 아닌 서비스형 상품” ZEP의 새로운 제안

EU의 탄소 관련 공식 자문 역할을 하는 기술·정책 플랫폼 Zero Emissions Platform은 CO₂ 운송 및 저장 인프라를 규제하기 위한 내년 EU 입법안 발표에 앞서 권고안을 제시

ZEP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CO₂를 저장 또는 활용을 위한 거래 가능한 상품으로 간주, EU 기후 목표를 달성한다는 비전을 제시

현재는 국가별 규제 차이로 EU 차원의 통합 시장을 만들기 어렵고, 일부 국가는 상업 규모 저장을 금지하거나 연구·시범만 허용하고 있어 CCS 사업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CO₂를 ‘폐기물’로 분류하는 법체계 때문에 국경 간 운송도 까다로운 상황

이에 ZEP는 CO₂는 에너지 가치가 아닌 CCS와 CCU를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 거래되므로 CO₂ 시장을 전통적 원자재 시장과 동일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저장·활용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

더불어 CO₂를 상품으로 인정하는 EU 차원의 법적 기반 마련과 금융 리스크 완화 장치 도입을 촉구함.



EU, 항공사 SAF 지원 위해 1억 유로 배출권 무상 할당

EU가 53개 항공사에 약 1억 유로 (약 1,650억 원) 상당의 무상 탄소배출권을 할당하여 2024년 지속가능항공유 (SAF) 사용 비용을 보전하도록 지원함.

이는 기존 등유 대비 가격이 높은 SAF의 부담을 줄여 보급 속도를 높이려는 목적

EU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SAF 전용으로 총 2천만 개 배출권을 할당할 예정이며, 첫 해에 130만개(1억 유로)가 배분됨.

항공사들은 SAF 사용분에 대해 배출권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기존 혜택도 받아 2024년에만 약 2,500만 유로 (약 413억 원)를 절감

EU는 이를 통해 SAF 확대 보급 의지를 강조. ETS 수익금은 항공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청정 기술 투자에도 활용할 예정



항공업계, CORSIA 배출권 공급 위해 승인서 조기 발급 촉구

항공업계가 CORSIA 제도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각국 정부에 LoA (승인서) 발급을 촉구

항공업계는 CORSIA의 첫 번째 이행기간 (2024~2026년) 동안 적격 배출권 (EEU) 수요가 약 1.46억~2.36억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

그러나 현재까지 2024년 2월 가이아나에서 발행된 프로젝트 외에는 발급 사례가 없어 EEU 공급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임.

IATA (국제 항공 운송 협회)에 따르면, ICAO (국제 민간 항공 기구)의 기술적 요건 (독립적 검증, 지속가능성 확인, 등록부 기능, 태깅 및 국가 보증 기능)을 충족한 검증된 프로그램이 존재

이를 호스트 국가에서 LoA 발급을 통해 해당 크레딧이 공식적으로 CORSIA 적격 크레딧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이 필요

LoA는 환경적 무결성의 보장, 이중계산 방지 및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는 핵심 장치로서, 2027년 CORSIA 의무 적용 시 국제항공 배출량의 85% 이상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동 사안에 대한 긴급성이 증대



페루 - 싱가포르, 파리협정 6.2조 기반 탄소시장 협정 실행 돌입

페루 정부는 지난해 COP29에서 최종 협의 후 올해 4월 싱가포르와 체결된 파리협정 제6.2조 협정을 실행하기 위한 규정을 발표

이는 싱가포르가 남미 국가와 체결한 첫 번째 상업적 파트너십으로, 국제 탄소크레딧을 활용해 자국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임.

동 규정은 10월 18일부터 발효되며, 프로젝트 승인, ITMO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발급과 이전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해당 거래를 제도적으로 보장

싱가포르는 페루 등 타국에서 진행되는 REDD+ 프로젝트로부터 200만톤의 탄소 크레딧 구매를 발표했으며, 크레딧 가격은 톤당 20~50달러 (약 2.8만~7만 원) 수준

프로젝트는 양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에 제출되고, 양국이 함께 승인해야 함. 승인 후에는 ITMO 발급과 이전이 가능하며, 모든 과정은 투명성, 환경적 무결성, 이중계산 방지 원칙을 따름.

ITMO는 페루와 싱가포르의 공공 등록부에 기록되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미사용된 ITMO 취소를 통한 글로벌 감축 기여 조항도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보고와 정보 공개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예정



바클레이즈, 탄소 제거 Offtake 최대 규모 계약

영국 은행 바클레이즈(Barclays)가 캐나다에서 진행되는 ERW (Enhanced Rock Weathering) 프로젝트와 Offtake 계약을 체결해 6,538톤의 CO₂를 영구 제거하기로 함.

이는 영국 기업이 체결한 최대 규모의 ERW Offtake 계약임.

ERW 기술은 잘게 부순 규산염 암석을 농지에 살포해 자연 풍화 과정을 가속화하는 방식. 이 과정에서 CO₂가 흡수·저장되고 동시에 토양 건강도 개선되어 기후와 농업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바클레이즈는 자체 운영 배출 (Scope 1, 2)을 95% 감축했다고 밝히며, 금번 계약을 통해 남은 배출을 보완해 2050년 넷제로 목표 달성을 뒷받침한다는 계획

이번 사례는 금융권이 본격적으로 탄소 제거 시장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동시에 ERW 기술의 확장 가능성과 신뢰성을 입증하는 사례라 평가



BCG “5개 중 4개 기업, 기후 대응으로 돈 벌었다”

BCG (보스턴컨설팅그룹)와 CO₂ AI (BCG가 개발한 AI기반 탄소 관리 플랫폼)의 연례 기후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2%가 탈탄소 활동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남.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전 세계 온실가스의 약 40%를 배출하는 대기업들로, 전 범위 (Scope 1~3) 배출량을 측정하는 기업 비중은 감소했으나, 향후 5년간 자본지출 (CAPEX)의 16%를 기후 대응에 투자할 계획이라 밝히며 기업들의 기후 행동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임.

일부 기업은 탈탄소화를 통해 연 매출의 10%를 넘는 수익을 기록했으며, 순이익 기준 기업당 평균 2억2,100만 달러 (약 3,050억 원)를 창출함. BCG는 친환경 제품·서비스 개발을 통한 매출 확대 및 자원 절약·효율화에 따른 운영비 절감이 주요 요인이라 밝힘.

또한 절반 가까운 기업은 기후 리스크 대응 활동으로 10% 이상의 투자수익률 (ROI)을 얻었다고 응답

AI와 디지털 도구를 적극 활용하는 기업은 동종 업계보다 10% 이상 높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 행동이 단순한 비용이 아닌 재무적 성과이자 경쟁력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시사



IBKS 탄소금융본부 사업

탄소배출권

■ 규제 탄소배출권 트레이딩

- 국내 탄소배출권 장내 거래(KRX)
- 국외 탄소배출권 현물 거래(EU, 중국 등)

■ 자발적 탄소배출권 트레이딩

- VERRA, GS 등 매매
- 비규제 글로벌기업 대상 배출권 공급

■ 국내외 탄소배출권 사업개발

- 규제 및 자발적 시장 통용 가능 국내외 배출권 사업 개발 및 배출권 확보

환경에너지 파생상품

■ 에너지·원자재 선물 거래

- 탄소시장 유관 종목 개발 및 제공
- 원유, 납사, 곡물, EU배출권 등

■ 탄소배출권 펀드 개발 및 운용

- 업종별 특화 탄소배출권 펀드 상품화
- 국내외 탄소배출권 펀드 참여

■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조달

- PPA Offtaker / Spot REC 중개 & 주선
- 국내 발전소와 글로벌 RE100 기업 연계

탄소 금융조달

■ 구조화 상품 개발 및 중개

- Clean-Tech 기업 & 기술 & 설비 투자
- 주식, 채권, 원자재 등 파생결합분야 확대

■ 친환경 자산개발 PF

- 친환경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등
- 스마트팩토리, 친환경공정설비 도입 등

■ ESG 특화 벤처 투자

- K-Taxonomy 기반 평가 및 금융 제공
- 기업 성장 동력 & Value & 수익 확보

■ 유의사항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IBK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수수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IBK투자증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BK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6-20호
(2026.03.17 ~ 2027.03.16)

IBK투자증권 탄소금융부

carbon@ibks.com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